

폐기물처리업체 자격 검증... 순천시 쓰레기산 사라진다

내년부터 적합성확인제 시행...업체 허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위반 땀 보완기간 등 거쳐 허가 취소...환경오염원 원천 차단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원으로 꼽히는 '불법 폐기물 쓰레기산'이 앞으로 순천에서 사라지게 된다.

순천시가 폐기물 안전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이하 적합성확인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5년마다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성확인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89곳이며, 이 중 23곳은 내년 적합성확인 대상이다.

주요 적합성 확인 사항은 허용보관량 준수와 재활용 시설 보유 여부이다. 처리업체마다 보관량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일분 이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고, 또 재활용시설인 압축·폐쇄·용융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제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한번 허가 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가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허가 취소 전까지 3개월의 보완기간과 청문

절차 등을 갖는다. 반면 위반 사항이 없는 우수업체에게는 확인 주기를 2년 더 연장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적합성확인제 시행에 따라 시내 불법 쓰레기산 감소와 함께 환경오염의 요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토양·수질오염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처리업체의 적정 자격과 능력을 검증함에 따라 흉물스러운 쓰레기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할 순천시 조성과 시민들의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는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업적합성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거장비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거대한 쓰레기산. <순천시 제공>

찬바람 가르며~ 짚와이어 1km 짜릿한 질주



다음달 개장을 앞둔 광양 짚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 광양짚와이어 질주 모습. <광양시 제공>

광양시 '섬진강 별빛 스카이' 다음달 개장 앞 무료 체험단 모집

12월 11~19일 110명 대상 특별 이벤트...참가자엔 상품권 증정도

'섬진강에서 짚와이어 1km 질주의 짜릿함 느껴 보세요'

광양시가 섬진강 마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인 광양 짚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내달 개장을 앞두고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총길이 898m 규모로,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가로지른다. 활강 4라인·회수 1라인 등 총 5개 라인으로 구성됐으며, 출발지까지는 12인승 모노레일이 운행된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다음달 10일 개장식을

맞고,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광양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새로운 관광시설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19일까지를 특별이벤트 기간으로 정하고,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체험단 대상은 광양관광 인스타 팔로워로, 짚와이어 탑승 가능 체중(45~105kg)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2월 5일까지이며, 광양문화관광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10명이며, 이벤트 기간 중 평일 10명, 주말(토·일요일) 각 20명씩 모집한다. 단 신청 날짜에 인원이 초과 모집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체험단 선정자에게는 다음달 9일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무료 체험 기회뿐만 아니라 1만원권 상품권을 현장에서 증정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통해 섬진강과 마덕포구의 푸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짜릿한 전율까지 느껴볼 수 있다.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무료 체험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국가산단에 최첨단 수소·액화탄산 제조시설

다이하이에어가스, 2042억 투자...수소 6천t·액화탄산 16만t 설비 구축

최첨단의 수소·액화탄산 제조시설이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선다.

여수시가 전남도-다이하이에어가스㈜와 함께 여수국가산단 내 수소·액화탄산 등 제조시설을 신설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지난 25일 전남도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정기 여수시부시장, 오규석 다이하이에어가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이하이에어가스㈜는 오는

2026년까지 여수국가산단에 2042억원을 투자해 연간 수소 6000t과 액화탄산 16만t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신설될 제조시설은 인접 기업에서 발생한 배가스를 활용해 초고순도 수소·액화탄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고 산단 기업체 및 국내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이하이에어가스는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을 비쳐 대규모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오규석 다이하이에어가스 대표는 "국내 최초 적용되는 선진기술을 도입해 수소를 생산·판매하고 고순도 액화탄산을 일반급·반도체급으로 공급함으로써 첨단소재 공급기지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명 여수시장은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녹동항 드론쇼' 8개월 대장정 마무리

30일 폐막식에 1500대 드론쇼...버스킹·해상 불꽃쇼 등 화려

고흥군은 오는 30일 저녁 6시 30분, 녹동 바다정원에서 '2024 고흥 녹동항 드론쇼' 폐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간단한 폐막식을 진행한 뒤, 1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를 선보이며 대장정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마지막 공연인 만큼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고흥 미래 비전 전략을 알리고,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드론 200대에 불꽃을 장착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해상 불꽃쇼에서도 약 2200발의 폭죽을 준비해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 드론쇼 공연에 앞서 녹동 바다정원 내에 제

기, 굴렁쇠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올 한 해 녹동항 드론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콘텐츠로 채워질 폐막식에 많은 분들이 꼭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에는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와 연계한 드론쇼 특별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행사의 특성상 우천이나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주자경 기자 gju@kwangju.co.kr

화엄사 화엄석경 학술적 가치 재조명

전수 조사·연구 보고회서 복원·재현 가능성 등 발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가 지난 23일 '화엄석경 전수조사 및 학술연구 1차 년도 성과보고회'를 화엄석경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가유산청과 전남도청, 구례군이 공동 추진하는 '화엄석경 전수조사 및 학술연구'의 첫 해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수조사 및 학술연구는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날 화엄석경관장 우견스님이 대독한 화엄사 주지 덕문 큰스님의 인사말과 이길용 구례군부군수의 축사로 시작한 보고회는 화엄석경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물론 미래의 복원 및 재현 가능성까지 적극 타진하는 총 5개 부분의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이규강 연세대 명예교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의 '화엄석경 석판상의 한자 고석'에 이어 '화엄석경 복원과정 및 선택 위치 찾기(나유리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 '화엄석경 전수조사 현황 및 전망(전국조 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연구센터장)', '화엄석경 보존처리 및 석경판 조립(조경미 팜플문화유산 이사)', 'AI 기반 화엄석경 석판 가상 재조립 복원 기술 개발(안재홍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순으로 발표됐다.

이날 이길용 구례군 부군수는 "국내 최고의 석경으로 우리 구례의 자랑이자 1990년 보물로 지정된 국가유산인 화엄석경의 가치를 다각도로 발굴하는 데 힘써 주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례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견 스님은 "보물로 지정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야 본격적인 연구의 첫 발을 내딛었음을 본인 상량이라 향후 각별한 관심을 물론 실질적인 지원까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사랑으로 버무렸어요" 곡성 죽곡면 김치 나눔

주민 주도 '정애반하다' 사업...김장 480kg 취약계층 48가구 전달



곡성군 죽곡면 복지회관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로 온정이 넘쳤다.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총 480kg 상당의 김장김치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48가구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나눔행사는 주민주도 마을복지프로그램인 '정(情)애(愛)반(飯)하다' 사업 일환으로 시행됐

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인 만큼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임수대 죽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담긴 김치를 전달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

"글 읽고 쓰니 참 좋소" 어르신들 함박웃음

보성군 조성면 수촌마을 초등 2단계 문해교육...6개월간 시·그림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 너무 기뻐요, 그간 배우려 다녔던 날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지난 20일 '조성면 수촌마을 성인문해교실'의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소감이다. 이번 문해교실은 초등 2단계 성인문해교육으로, 지난해 초등 1단계를 수료한 어르신들이 초등 2단계에 도전해 한글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한층 더 향상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한 마지막 수업은 단순한 학습 종료의 의미를 넘어,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더 큰 의미를 담았다. 이날 어르신들과 조성남 초등학교 학생들은 서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2단계 수업을 마무리한 어르신들은 다음 단계의 수업을 향한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한 표정들이었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번 성인문해교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면 수촌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에서 진행되는 '성인문해교실'은 보성군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앞으로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